

## 제5장 북한 여성과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과제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equality in unified Korea

---

저자 (Authors)	남성욱, 이가영, 채수란, 배진 Nam Sung-wook, Lee Ga-young, Chae Su-lan, Bae Jin
출처 (Source)	<a href="#">통일전략 17(3)</a> , 2017.9, 165-223(59 pages) <a href="#">Unification Strategy 17(3)</a> , 2017.9, 165-223(5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통일전략학회</a> Korean Association Of Unification Strateg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734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7344</a>
APA Style	남성욱, 이가영, 채수란, 배진 (2017). 제5장 북한 여성과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과제. 통일 전략, 17(3), 165-223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58.120.119.*** 2022/01/17 15:3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제5장 북한 여성과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과제

남성옥\*, 이가영\*\*, 채수란\*\*\*, 배진\*\*\*\*

### [국문요약]

북한의 양성평등은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장기간 생활했던 남북한은 현실생활에서 각각의 고유한 젠더(gender) 인식을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제시할 경우 통일한국 주민들의 사회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사회와 사회주의의 마초이즘(machoism)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북한 주민의 남성우위 인식은 남한 국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양성평등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미래 한반도의 사회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양성평등 실태와 의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북여성 대상의 조사결과는 북한 사회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되었고 고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경제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양성평등 실현으로 연계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경제난 속에서 여성의 슈퍼우먼 증후군만이 강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양성평등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주로 '남성들의 가부장적 문화'와 '법률이나 규정이 형식적이기 때문'으로 나타나, 향후 통일한국에서 북한과 남한의 통합을 위해 가부장적인 의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

\* 제1저자, 고려대학교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 제3저자, 고려대학교

\*\*\*\* 제4저자, 고려대학교

주제어 : 양성평등, 가부장적 권위주의, 슈퍼우먼, 탈북여성, 북한여성

## I. 서론

21세기는 '3W시대(Web, World, Women)'임과 동시에 '3F시대(Feelings, Fiction, Female)'이다.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21세기에 '3W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면서 세계화(world), 웹(web)에 이어 여성(women)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학자 페이스 팝콘은 '이브'(EVE)와 '진화'(evolution)의 합성어로 '이브올루션'(EVEolution)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브올루션'이란 여성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21세기 '이브올루션'(EVEolution) 시대의 명제는 명확하다. 양성 평등 실현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양성 평등 실현 없이 선진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sup>

한반도의 미래에서 북한을 제외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북한 여성의 지위와 양성 평등의 수준을 연구하는 것은 3W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할 것이다. 북한의 양성평등은 다양한 이유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장기간 생활

---

1) 김형준,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비전,"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2017년 4월 20일), pp.45-70.

했던 남북한은 현실생활에서 각각의 고유한 젠더(gender) 인식을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제시할 경우 통일한국 주민들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와 사회주의의 마초이즘(machoism)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북한 주민의 남성우위 인식은 남한 국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남한의 양성평등도 선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sup>2)</sup> 다만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특수사회와 비교해서 남한의 양성평등 의식이 선도적인 만큼 남북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미래 한반도의 사회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양성평등 실태와 의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 2) 한국의 양성 평등 순위가 전 세계 144개국 중 116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2016’(Global Gender Gap Report 2016)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1점 만점에 0.649점으로 116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이 받은 점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이 가장 높은 순위인 76위(0.973점)를 차지했다. 이어 ‘정치적 권한’이 92위(0.120점), ‘교육 성취도’는 102위(0.964점), ‘경제 참여·기회’는 116위(0.649점)에 그쳤다. ‘경제 참여·기회’ 분야에서는 특히 남녀 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을 할 때 임금을 평등하게 받는지 묻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12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추정 임금도 남성은 4만6183달러인데 반해 여성은 2만760달러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또 직장 내 여성 간부 순위도 114위에 불과해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는 매년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 △정치 권한 등 총 4개 분야의 젠더 격차를 수치화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다. 중국은 99위, 일본은 111위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여성신문, 2016년 10월 26일.  
<http://www.womennews.co.kr/news/98958> (검색일: 2017. 5. 30).

김일성은 사회주의 북한정권의 수립 초창기에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다. 1946년 7월 22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초안에 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sup>3)</sup> 이 결정서의 급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대로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54호에 따라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법령 1조는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또한 본 법령의 발표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적시했다.<sup>4)</sup> 북한은 이 법령의 채택을 ‘역사적 사변’이라 선전하면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됐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29조에 달하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이 공포되었으며 이혼의 소송절차, 양육비의 부담방법, 성매매 시 처벌수준 등 가정생활 관련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sup>5)</sup>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초기에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사실상 동면상태에 있던 여성들의 의식과 목소리를 깨우치는 1단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북한은 공산세력의 권력을 강화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정치에 동원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에 여성 대중 정치조직인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을 조직하였다. 이 여성대중조직은 1951년 1월 ‘조선민주여성동

3) 정경모·최달곤 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4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p.548.

4) 위의 책, pp.549-553.; 구수희 편저, 『북한연구법전』 (서울: 행법사, 1996), pp.232-233.

5) 정경모·최달곤 책임편집(1990), 앞의 책, pp.551-553.

맹'으로 확대 개편될 때까지 정권 수립 초기 김일성의 권력과 당의 조직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김일성은 여성을 배려한다는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을 박차고 일터로 나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양성평등의 기초를 국가정책으로 확정하고 헌법에 남녀평등을 규정하였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77조)”고 규정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양성평등을 적극적이고 급속하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양성평등은 현재 북한에서 당초의 선전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또한 통일과정 및 이후에서 북한의 양성평등 실상은 통일한국에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까 등이 본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만약 북한의 양성평등이 형식적이고 통치전략 측면에서 당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면 통일한국 사회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미시적인 갈등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양성평등 실태의 진정한 의미와 적나라한 현실을 파악해서 향후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양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연구 이외에 여성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북한여성탈북주민 167명을 대상으로 과거 북한에서 거주하였을 때 경험하였던 양성평등의 원칙, 기준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상을 파악하였다. 조사연구에 내재한 양적 접근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10명의 여성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양성평등 정책의 의도와 개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 등을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북한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 제도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1. 기존 연구 검토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의 영향과 ‘북한 바로알기’ 흐름 등으로 북한연구에서 분야별 각론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sup>6)</sup> 최초로 가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존의 기본적인 경제적 단위로 활동하는 조정 체계(family coordination)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시도되었다.<sup>7)</sup> 이에 따라 북한의 여성과 가족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연구도 진행되었다.<sup>8)</sup> 또한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6) 남성욱, “80년대 남북관계와 한국사회의 대북관: 이상과 현실,” 『국제문제연구』 제13권 4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 pp. 153-193.

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2), pp.106-107.

8) 통일원, 『북한 가족법과 가족실태』 (서울: 통일원, 1991), p. 97.;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서울: 법원행정처, 1998), p. 217.; 신영호, “북한 가족법의 제정과 그 특색,” 『북한법률행정논집』 제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2), p.229.

가 수행되어 북한의 가족정책 및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sup>9)</sup> 특히 가부장제 사회주의를 비롯한 가족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sup>10)</sup> 동시에 법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가족법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11)</sup> 2000년대 이후에도 북한여성 연구에서 북한정권의 여성 정책, 제도 및 법 등을 주제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12)</sup> 기존연구들은 현장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당국의 공식 간행물을 해석하고 함의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연구자는 북한의 공식매체인 노동신문을 분석하여 북한 여성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하였다.<sup>13)</sup>

한편 2000년대 들어 6·15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 
- 9) 김애실,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제4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1996년 12월 9일), p. 36.; 이배용,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p.120.
- 10) 조형,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1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1992년 11월 30일), p. 20.;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1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1992년 11월 30일), p. 6.; 김선옥 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여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p.29.
- 11) 이윤희 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연구,” 『북한·통일연구논문집: (V) 사회·문화 분야』 (서울: 통일원, 1990), p.251.
- 12)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50.; 헬렌 루이스 헌터, 남성욱 외 역, 『CIA 북한보고서』 (서울: 한송, 2001), p.65.
- 13)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통일연구원, 2015), pp.209-239.



북한 연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한연구학회에서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학총서를 발행한 것은 북한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된다. 10권의 총서 중에서 제9권에서 북한 여성의 다양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여성 및 가족관련 연구가 체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14)</sup>

북한 사회의 현장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설문 조사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문숙재 외(2000)는 중국에 사는 탈북민 202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정진경(2002)은 북한 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남녀 탈북자 150명에게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KSRI)와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검사(KGES)를 실시하였다. 김태현 외(2004)는 중국에 체류 중인 20~30대 북한여성 13명을 대상으로 가족사항, 탈북동기, 인신매매 경험, 결혼경력 및 결혼유형 등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sup>15)</sup>이 발표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연구과제들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거 진행되어 통일 이후 사회문화를 비롯한 여성 가족분야의 통합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p>16)</sup> 강동완 외(2014)는 제3국에서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

---

14)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33-49.

15) 신창민, 『통일대박론』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p.25.

16) 박복순,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p.5.; 김혜영 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의식 및 문화통합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27.; 장혜경 외, 『통일 대비 여성 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46.

로 양적통계 및 심층면접을 통해 통일의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안태운(2015)은 1936년 북한에서 출생하여 엘리트의 삶을 살다가 2003년 탈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구술형식의 생애사 연구와 면접을 통해 북한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집중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기초토대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에도 주력하였다.

## 2. 연구방법

### 1) 설문조사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국내 거주하는 여성 탈북자 16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 의견조사> 제하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북한의 여성 지위와 의식에 관한 조사, △북한 여성들의 차별 대응 실태, △북한의 이혼 실태, △북한 여성이 체감하는 남한 사회의 남녀평등 인식 등을 주제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53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여성지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남한 사회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느낀 남한 사회의 여성지위 등도 질문하였다. 북한에서 지역별, 연령별로 개별적인 사회생활의 배경차이가 있는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부 설문조사에서 미흡하게 파악된 내용들을 비교 및 교차 질문을 시도하여 보완하였다. 다만 김정은 시대(2012년~현재) 탈북자의 비율이 전체에서 15%에 불과하여 김정은 시대를 특징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들어 매년 1천여 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있어 그 추세와 경향을 분석할 경

우 시계열 분석에 의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점차金正은 시대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 2)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초점집단인터뷰는 탈북자들이 설문지 질문에서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분단 70년은 문화의 각 분야에서 이질화를 촉진시켰지만 특히 언어와 사고체계의 이질화는 남북한 주민 간의 기초적인 소통에서 상당한 제약조건을 유발시켰다. 결혼, 별거, 이혼, 동거, 가부장제, 권위주의, 가장의 역할 및 남녀의 차이 등 기초적인 가족관련 질서나 법제 등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탈북자들이 이해하는 용어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질적으로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통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이라는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

17)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2016년 11월 11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탈북자들의 성별을 보면, 과거에는 남성들이 다수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탈북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탈북자의 71%가 여성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 말까지 탈북자 가운데는 80% 이상이 여성이다. 연령대 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8%이며, 부모가 탈북한 뒤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탈북 청소년의 비율이 51%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검색일: 2016. 11. 15).

### Ⅲ. 북한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 의식조사 결과와 함의

####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10대가 0명(0.0%), 20대가 18명(10.8%), 30대가 17명(10.2%), 40대가 37명(22.3%), 50대가 39명(23.5%), 60대가 가장 많은 55명(33.2%)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시기는 2015년 이후가 3명(1.8%), 2014~2012년이 22명(13.2%), 2011~2009년이 52명(31.1%), 2008~2006년이 33명(19.9%), 2005~2002년이 43명(25.8%), 2001년 이전이 14명(8.4%)이다. 조사대상 중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탈북자의 비율은 15%다.

<표 1>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시기

단위: 명(%)

구분	2015 년 이 후	2014 ~ 2012 년	2011 ~ 2009 년	2008 ~ 2006 년	2005 ~ 2002 년	2001 년 이 전	전체
응답수 (비율)	3 (1.8)	22 (13.2)	52 (31.1)	33 (19.9)	43 (25.8)	14 (8.4)	167 (100.0)

조사대상이 북한에서 거주하였던 지역은 평안남도 10명(6.0%), 평안북도 2명(1.2%), 자강도 0명(0.0%), 함경남도 22명(13.1%), 함경북도 112명(66.9%), 양강도 11명(6.9%), 황

해남도 2명(1.2%), 황해북도 1명(0.6%), 강원도 1명(0.6%), 평양이 6명(3.5%)이다. 상대적으로 중국 연변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였다. 이는 현재 전체 탈북자 중에서 탈북이 용이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지역 출신이 80% 이상인 비율이 본 조사에서도 반영된 결과다. 대상자들은 북한에서 자영업 9명(5.3%), 농·수·축산업 10명(5.9%), 생산 및 서비스직 38명(22.5%), 사무직 35명(20.7%), 전업주부 45명(26.6%), 학생 15명(8.9%), 무직이 14명(8.3%), 기타가 3명(1.8%)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의 결혼여부는 미혼이 41명(24.6%), 기혼이 73명(43.6%), 이혼이 15명(9.0%), 사별이 35명(21.0%), 기타 3명(1.8%)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유무는 '자녀가 있다' 128명(78.5%), '자녀가 없다' 35명(21.5%)이다. 가정 내에서의 양성 평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내 형제자매 중 몇 번째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첫째가 66명(40.7%), 둘째가 51명(31.5%), 셋째가 28명(17.3%), 넷째 이상인 기타가 17명(10.5%)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의 탈북 전 북한에서의 경제적 지위는 최상급이 0명(0.0%), 상급이 5명(3.0%), 중급이 58명(35.0%), 하급이 82명(49.3%), 최하급이 21명(12.7%)으로 나타났다. 탈북 후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위는 최상급이 1명(0.6%), 상급이 1명(0.6%), 중급이 39명(23.4%), 하급이 96명(57.4%), 최하급이 30명(18.0%)이다.

## 2. 북한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실태

### 1) 북한의 여성 지위와 의식에 관한 조사

북한 정권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남녀의 고유한 역할이나 특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있다’가 82명(50.0%), ‘없다’가 82명(50.0%)으로 비율이 동일하게 집계되었다. 동일한 비율의 답변이 나온 의미는 탈북여성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상반된 견해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는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남녀에 대한 고유한 역할을 기억하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별, 지역별, 연령별로 일관성이 결여된 반응을 보였다. 대상자들이 국가로부터 남녀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이 없다는 50%의 반응은 당국이 특정 시간에 특정 교육장소에서 남녀평등을 교육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으로 공적인 교육에 비중이 실린 답변이었다. 겨우 중학교에서 요리·위생·봉제 등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여학생 대상의 실습 교과목 정도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기억이다. 반면 교육 경험이 있다는 50%의 답변은 북한사회에서 특별한 교육이 없을 뿐이지 당국에서 확립한 문화에 각자의 남녀 역할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존여비와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남성은 산악노동, 전쟁은 물론 처자식을 부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여자는 조신하고 정숙해야 한다는 덕목을 강조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여자가 조신해야지” 또는 “여자가 왜 그러냐?”

는 소리로 많이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국의 교육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지역은 한반도 역사에서 말갈족 및 여진족 등 이민족과 치열한 국경전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남성 중심의 마초이즘(Machoism)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중동지역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지키는 것은 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투쟁이었다. 사막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에는 남성이 전면에서 나설 수밖에 없고 중동의 가부장적 문화는 종족 생존을 위한 자연스런 문화가 되었다.<sup>18)</sup> 북한과 중동의 가부장적인 유사한 문화가 정착하게 된 배경은 공통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다음은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특성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답변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율은 167명(100.0%)을 넘는다. 이에 대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6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북한의 정책과 사상이 이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여성들은 수령에게 충실하고 가정에서 효녀가 되어야 한다’(55.5%)와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존재이니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36.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북한에서 여성은 사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역시 효녀이어야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28.7%), ‘여성들은 남성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할

---

18) 서정민,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5), pp.37-59.

수 없다'(9.8%)는 응답도 나와 북한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여성의 역할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과 특성관련 교육 내용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존재이니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59 (36.0)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110 (67.1)
여성들은 수령에게 충실하고 가정에서 효녀가 되어야 한다	91 (55.5)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47 (28.7)
여성들은 남성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할 수 없다	16 (9.8)
기타	1 (0.6)
전체 명 수 / 응답 수	164 / 324 (197.7)

북한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제는 북한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가치체계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남녀가 동등하게 추진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의 강조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했다. 1946년 공포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낡은 봉건적 남녀관계를 개혁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문화적·사회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선언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측면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남녀가 구분이 없으며 오히려 여성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하여 관망하며 소극적



인 남성들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독려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등이 교차되는 정치 세계에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역설적으로 활용하였다. 북한 여성의 정치 참여는 1945년 11월 창립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평등을 보장하여 제도상 및 형식상으로는 남한과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로 부계중심 사회 속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부장 제도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정치 및 사회활동 참여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졌다. 북한 당국은 여성을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김일성에 종속하는 하나의 부속계층으로 결속하는데 주력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초기 여성을 북한 사회의 혁명 역량과 당의 군중적 지지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동맹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 창립됨으로써 여성들이 대중적인 정치조직을 기반으로 사회·정치 생활에 떳떳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진보적 여성들과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세계여성운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여성들은 여맹 결성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여성로력」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여성노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려운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풀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여성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당국은 가족제도의 타파와 함께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로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여성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sup>19)</sup> 여성이 '로

동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교육은 문맹퇴치였다. 북한 당국은 1945년 11월 5도행정국에 교육국을 창설하여 교육투자와 문맹퇴치를 확대하였다.<sup>20)</sup> 김일성은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훌륭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경공업 분야나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일반 사무업무에서 벗어나 중공업 등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sup>21)</sup> 이를 위해 김일성은 1958년 7월 19일 내각결정 제84호를 통해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 데 대하여>를 공포하였다. 이 조치는 1961년에 이르러 전종업원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는 평균 60%, 기타에는 평균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남성로력을 점차 교체하며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문에 추가되는 로력은 반드시 여성들로서 보충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대학, 전문학교 등 각종 양성기관의 학생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점차 높일 것”도 제시하였다.<sup>22)</sup>

북한에서는 국가라는 대가정은 수령, 당, 대중으로 구성된 생명체이며 각각의 관계는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동운명체라고 세뇌 교육을 시켰다.<sup>23)</sup>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북한에서 공감하였는지에

19) 윤미량, “북한 여성의 위상과 역할,”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55-115.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인민경제의 발전』 (평양: 과학원, 1954), pp.67-78.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394-395.

22) 정경모·최달곤 책임편집(1990), p.298.

23) 공산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넓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배격하고 근로자들을 나라와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 교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 설문에서 ‘공감하였다’(48.2%)와 ‘매우 공감하였다’(25.9%)가 다수를 차지하여,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는 세뇌교육에 실제로 공감한 사람이 많았다. ‘공감하지 않았으나 당국에서 교육하니까 공감하는 척 했다’(14.5%)가 뒤를 이어, 공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척을 해야 하는 북한 사회의 분위기를 추론할 수 있다. ‘공감하지 않았다’(8.4%)와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3.0%)는 응답도 있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정책적으로 남녀평등권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생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체제 속에서 여성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아버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이념에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항상 당과 집단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 있다.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얽매어 가사 및 육아와 노동력 수단으로서의 생산 활동 수행 등이 중적인 부담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각종 사회주의 체제에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경쟁 운동과 목표 책임량 완수 및 매일 매일의 이념 학습 의무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대가정론의 명제는 북한 여성들이 가정, 당 및 수령의 삼각 구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이념적인 족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

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공화국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만들며 우리의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289.

<표 3> ‘국가는 대가정’ 교육의 공감 정도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공감하였다	43 (25.9)
공감하였다	80 (48.2)
공감하지 않았으나 당국에서 교육하니까 공감하는 척했다	24 (14.5)
공감하지 않았다	14 (8.4)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5 (3.0)
전체	166 (100.0)

북한에서 남녀평등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86.1%)라는 답변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이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들어 보았다고 응답했다. 탈북자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법령 내용은 초등, 중등, 고등 및 대학 교육 과정에서 필수과목인 ‘김일성혁명화 수업’ 시간에 포함되면서 의무적으로 계속 암기했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차세대들이 북한체제의 성립과정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1946년 토지개혁 등 정권초기 핵심과업을 학교수업에서 지속적으로 주입시켰다. 북한의 여성들은 외형적으로 법령을 암기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 당국을 향해 일단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60.0%), ‘있다’(40.0%)로 응답했다.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없다’(59.2%), ‘있다’(40.8%)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한 심층 인터뷰 결과, 북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층 인터뷰는 이를 탈북자들의 현장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북한 사회 내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 전부 순종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북한의 수업과 교육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하고 당에서 결정한 사항을 머리에 넣는 것이기에 절대로 비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기에 받는 차별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당에서 결정한 사항이면 그대로 따라야 하며, 여자가이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됩니다. 생활총화를 통해서 빈틈 없이 관리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도 스스로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듭니다.”<sup>24)</sup>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장소로는 가정(37.8%), 직장(31.7%), 기타(21.3%), 학교(8.5%), 단체(8.5%)로 나타났다. 여러 장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응답인원이 164명인 것에 비해 응답 수는 179회로 비율 합계가 100.0%를 넘는다.

<표 4>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장소  
단위: 명(%)

구분	가정	학교	직장	단체	기타	전체
응답수 (비율)	62 (37.8)	14 (8.5)	52 (31.7)	14 (8.5)	35 (21.34)	164 (100.0)

북한에서 성장할 때 가정에서 오빠와 남동생과 비교하여 차별받

---

24) 탈북여성 이영주(가명), 2006년 탈북, 2017년 1월 12일 인터뷰.

은 경험은 매우 많다(3.1%), 많다(25.0%), 잘 모르겠다(5.5%), 별로 없다(43.2%), 전혀 없다(23.2%)로, 가정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수였고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28.1%를 차지했다. 여성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남자이기에 우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여성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다고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빛이 안 나고 자질구레한 일은 당연히 여성이 하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에 있을 때에는 왜 여성을 시킬까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한국 사회에 와서야 그것이 차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나 '전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반수인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북한 가정에서 오빠나 남동생보다 부모에게서 차별을 많이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음식(32.7%), 기타(20.0%), 가사노동(16.4%), 의복(14.6%), 용돈(13.3%), 교육(12.1%), 예절(8.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음식에 대한 차별은 심층 인터뷰 결과로도 확인하였다.

“집에서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아버지 밥과 남자들 밥은 맛있는 부분으로 한 공기씩 먼저 떠서 드립니다. 여자들은 커다란 밥그릇 하나에 밥을 퍼서 다 같이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여자들은 항상 밥의 양이 모자라니까 내 앞에 있는 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부분의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이런 것도 아무도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차별인 줄도 몰랐어요. 남에 와서야 알았지.”

“북한 회령에서 여자축구 선수였어요.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배가 많이 고픈다. 배가 고파 기다리기도 힘든데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순서로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특히 어른들이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번은 중국 연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중국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남녀 차별 없이 밥을 같은 시간에 같은 식탁에서 먹는데 놀랐습니다.”<sup>25)</sup>

북한에서 직장 배치와 관련해서는 남녀 차별이 매우 심하다(5.5%), 차별이 심하다(34.1%), 잘 모르겠다(32.3%), 차별이 별로 없다(23.7%), 차별이 전혀 없다(4.4%)라고 응답하였다. 앞에서 가정에서는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던 데 반해, 직장을 배치 받을 때 있어서는 차별이 ‘매우 심하다’ 또는 ‘심하다’는 응답이 ‘차별이 별로 없다’ 또는 ‘전혀 없다’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북한에서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여성도 탄광에 들어갈 수 있고 월급도 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중요한 자리나 고위직에는 여성이 임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직장 중에서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공업 기업소(27.9%), 잘 모르겠다(20.6%), 사무직(19.4%), 군대(13.3%), 협동농장(12.7%), 일반 경공업 기업소(9.7%), 서비스업(4.2%), 학교(3.6%), 병원(1.8%), 기타(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답인원은 165명인 데 비해 응답 수는 190회이다. 중공업 기업소는 원래 남자가 많이 일하기 때문에 남녀차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이 나왔으며, 사무직 역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기

---

25) 탈북여성 김경숙(가명), 2002년 탈북, 2016년 9월 27일 인터뷰.

때문에 여성은 승진에 대한 욕심이나 신분상승 욕구 자체가 없으며 승진이 누락되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심층 인터뷰 결과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에 답변한 인원은 앞에서 차별이 별로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직장 중 남녀차별이 심한 분야

단위: 명(%)

구분	중공업	사무직	군대	협동농장	일반경공업	서비스업	학교	병원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응답수	46	32	22	21	16	7	6	3	3	34	165
(비율)	(27.9)	(19.4)	(13.3)	(12.7)	(9.7)	(4.2)	(3.6)	(1.8)	(1.8)	(20.6)	(100)

북한의 직장 중에서 남녀차별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농장(24.9%), 병원(21.8%), 잘 모르겠다(15.8%), 학교(13.9%), 사무직(9.1%), 경공업 기업소(7.3%), 중공업 기업소(6.1%), 군대(6.1%), 서비스업(3.0%), 기타(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역시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답인원은 165명인 데 비해 응답 수는 181회이다. 협동농장의 경우 공동으로 수확한 후 생산량에 비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 공수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차별이 가장 적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병원과 학교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차별이 거의 없다고 한다.



<표 6> 직장 중 남녀차별이 적은 분야

단위: 명(%)

구분	협동 농장	병원	학교	사무 직	일반 경공업	중공 업	군대	서비 스업	기타	잘 모르 겠다	전체
응답 수 (비율)	41 (24.9)	36 (21.8)	23 (13.9)	15 (9.1)	12 (7.3)	10 (6.1)	10 (6.1)	5 (3.0)	3 (1.8)	26 (15.8)	165 (100)

북한 직장에서 남성 동료보다 차별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53.6%), 식사(22.9%), 월급(13.9%), 근로시간(10.8%), 기타(7.2%), 치료(1.2%), 휴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도 자질구레하고 티가 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을 담당한다. 하지만 승진을 하고 주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남성이라고 한다. 야유회 등 직장에서 단체로 단합대회를 열어도 여자가 모든 일을 준비 및 처리하며, 행사가 종료되면 남자가 먼저 식당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앉고 남자 밥을 먼저 떠서 따로 준다고 한다. 여성은 일을 다 하고 늦게 가면 앉을 자리도 없고 배도 고프는데 남아 있는 음식은 거의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 당국의 여성노동력 극대화 정책으로 양성평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다.

북한은 남녀의 물리적 특성 차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배치하여 인력공급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노동력이 부재할 경우 남성들이 사무업무 등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 남성들의 사무직 종사는 광물 채광, 도로,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군수공업 육성과 농림어업 등에 투입할 인력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 수립 초기 각종 경제

건설에 투입할 인력난의 해결 방안 중의 하나가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었다. 북한은 인민경제에서 여성종업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선전한다. 특히 방직공업, 식료품가공업, 상업부문 및 보건부문 등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공업과 상업 및 물자유통과 병원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세워 당과 국가는 여성 노동력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압박받고 천대받던 여성들의 세기적 숙망은 오늘 노동당 시대에 훌륭히 실현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의 선전매체는 자본주의와 비교하여 사회주의 북한의 여성 정책이 우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남조선의 여성노동자들은 같은 노력에 비하여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모든 사회생활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6)</sup> 하지만 법과 제도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듯 보였지만 경제 활동에 있어서 직업에 따른 성별 분리정책을 통해 높은 임금과 각종 연금이 보장되는 중공업과 전문직 분야에는 남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연금이 보장되지

---

26) "여성노동력들을 위한 노동 보호조건이 원만히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여성들은 해마다 14일 또는 28일간의 정기적 휴가, 77일간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있으며 무상치료와 함께 무상해산 방조를 받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기준 규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휴식을 받고 있다. 또한 가정적 부담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가정생활을 알뜰히 꾸리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성노동력들을 위하여 수 만개소의 탁아소 및 유치원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모성 휴양소가 따로 있어 어머니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즐겁게 휴식할 조건을 보장 받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pp.394-395.

않는 경공업 및 상점과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여성을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급여 등 후생복지 측면보다는 외형적인 직업의 분리를 통하여 오히려 여성을 배려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은 여성들에게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내세우면서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여성도 남성과 나란히 혁명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치를 들었으나 결과는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동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북한 여성들은 남녀평등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10.9%), 많다(38.8%), 잘 모르겠다(14.6%), 별로 없다(32.7%), 전혀 없다(3.0%)라고 응답하였다. 49.7%의 응답자가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또는 '많다'라고 응답하였다. '별로 없다'에 응답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북한 사회에서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지 않고 북한 사회에서는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구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이 남녀평등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들어 본적은 있으나 남녀평등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58.8%), '사회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을 받았다'(18.8%), '잘 모르겠다'(13.3%), '남녀평등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9.1%)는 결과가 나왔다.

<표 7> 북한여성들이 양성평등에 관심이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응답 수 (비율)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남녀평등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97 (58.8)
사회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을 받았다	31 (18.8)
남녀평등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15 (9.1)
잘 모르겠다	22 (13.3)
전체	165 (100.0)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한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보다 매우 높다’(6.8%),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보다 높다’(7.4%),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과 비슷하다’(21.6%),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 낮다’(30.8%),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 매우 낮다’(27.8%), 잘 모르겠다(5.6%)로 응답하였다.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보다 ‘낮다’ 또는 ‘매우 낮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보다 매우 높거나, 비교적 높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최소 1/3이 한국 사회의 여성의 지위가 북한에 비해 높지 않다는 반응을 높인 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일부 탈북 여성들이 한국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일차 원인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

년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 △정치 권한 등 총 4개 분야의 젠더 격차를 수치화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다. 한국의 ‘경제 참여·기회’는 116위(0.649점)에 그쳤다. ‘경제 참여·기회’ 분야에서는 특히 남녀 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여성 간부 순위도 114위에 불과해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양성 평등은 세계경제포럼의 4개 지표에서는 각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 다만 우리 사회의 가정내 문화 및 여권 신장 속도 등은 매우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다. 조사 대상 탈북 여성들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지역 출신이 80% 이상이다. 특히 북한에서 자영업 9명(5.3%), 농·수·축산업 10명(5.9%), 생산 및 서비스직 38명(22.5%), 사무직 35명(20.7%), 전업주부 45명(26.6%), 학생 15명(8.9%), 무직이 14명(8.3%)으로 본인들의 취업 경쟁력 미흡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규 및 비정규 직업을 갖는데 각종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은 경제 활동의 참여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북한 당국의 직장배치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한국 사회의 여성지위가 반드시 높은 것만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다음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북한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지표로 제시하는 내용의 양성 평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1946년 남녀평등권 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남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남녀유별이라는 개념 하에서 동등하게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이 생각하는 남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교육 및 직장 등에서 표출되는 문화적 양성 평등이 탈북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음에 따라 한국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않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표 8> 남북한 여성 지위 비교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 매우 낮다	45 (27.8)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 낮다	50 (30.8)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과 비슷하다	35 (21.6)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 높다	12 (7.4)
북한 여성의 지위가 한국 여성의 지위보다 매우 높다	11 (6.8)
잘 모르겠다	9 (5.6)
전체	162 (100.0)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모님의 직업(64.5%), 본인의 능력(47.0%), 남편의 직업(45.8%), 본인의 외모(21.9%), 잘 모르겠다(2.4%)로 응답하여, 부모님의 직업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본인의 능력과 남편의 직업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직업과 능력은 ‘출신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심층 인터뷰 결과가 도출되었다.

“북한은 출신 성분이 지배하는 엄격한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보통은 아버지, 어머니 직업을 이야기하지요. 저는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동네 사람들

이 ‘법대 가야겠구나.’라고 말해서 커서 법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용직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인데 장애가 있고, 출신 성분이 안 좋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눈치껏 분위기를 보니 ‘나는 법대는 못 가는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학대학을 나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도당 간부과’에서 어느 병원으로 갈지 배치를 하는데, 나는 시골로 가라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집에 가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불효를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억울했어요.”<sup>27)</sup>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성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성분은 교육을 결정하고 교육은 직업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sup>28)</sup>

북한사회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일반적인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길다(23.6%), 길다(29.7%), 동등하다(43.7%), 짧다(3.0%), 매우 짧다(0.0%)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또는 ‘길다’가 53.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짧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하였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시간을 노동하거나 더 많은 시간 노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공식적인 직장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하루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직장 외에 가정에서의 일까지 합쳐서 보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

---

27) 탈북여성 이영주(가명), 2006년 탈북, 2017년 1월 12일 인터뷰.

28) Helen-Louise Hunter, Kim Il-song's North Korea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9), pp.1-11.

한사회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일반적인 노동 강도 및 할당량의 면에서는 ‘남성의 노동 강도 및 할당량이 높다’(18.8%), ‘남녀의 노동 강도 및 할당량이 동등하다’(44.9%), ‘여성의 노동 강도 및 할당량이 높다’(36.5%)로 응답하였다. 북한 사회에서 남녀의 노동 강도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여성의 노동 강도나 할당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남녀 간 가사 분담의 경우에는 ‘남성이 조금 돕지만 여성이 대부분 한다’(47.9%), ‘집안일은 여성이 전부 하고 남성은 하지 않는다’(43.0%), ‘남녀가 동등하게 분담한다’(8.5%), ‘집안일은 남성이 전부하고 여성은 하지 않는다’(1.2%), 기타(0.0%)라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경우 가사 일을 여성이 대부분 하거나 전부 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가부장적 생활 습관이 북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 하에서 여자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성은 전혀 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4년 이후 여성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권의 변화, 부부관계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남성들이 식사준비나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향이 생겨나 성역할 고정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sup>29)</sup>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들은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고, 시장화를 주도하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게 됐다.<sup>30)</sup> 이전의 엄격한 성별 분업현상은 깨졌지

29) 박현선, 앞의 책, p.371.

30) 『조선일보』, 2017년 4월 1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1/201704110016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1/2017041100169.html) (검색일: 2017. 4. 26).



만 이것이 가부장제 질서의 와해를 의미할 정도는 아니다.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전담하는 경우는 없고 보조적인 차원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정도에 그치며, 여성의 의식변화도 가부장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현상이 북한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중상층 이상 계층의 가정은 가부장제적인 성역할 분업구조가 지속되어 이전의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sup>31)</sup>

<표 9> 북한 사회의 가사 분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집안일은 여성이 전부 하고 남성은 하지 않는다	71 (43.0)
남성이 조금 돕지만 여성이 대부분 한다	79 (47.9)
남녀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14 (8.5)
집안일은 남성이 전부 하고 여성은 하지 않는다	2 (1.2)
기타	0 (0.0)
전체	165 (100.0)

북한 사회에서 어떤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어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역할’(57.8%) 및 ‘아

31)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2)(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p.203.

내(안해)의 역할'(47.0%)이 응답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사회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38.6%),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역할'(28.9%), '직장에서 노동자의 역할'(20.5%), 기타(1.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과 같이 어머니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음은 북한 체제 고유의 특성인 사회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는 “여성들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주부이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키우는 어머니이며 남편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안해이며 시부모를 존경하고 공산주의적으로 깨우쳐주는 며느리로서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혁명화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 어머니는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는 첫 교양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2)</sup>

<표 10> 북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역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어머니의 역할	96 (57.8)
아내(안해)의 역할	78 (47.0)
사회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64 (38.6)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48 (28.9)
직장에서 노동자의 역할	34 (20.5)
기타	2 (1.2)
전체	166 (100.0)

32) 사회과학출판사,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할 데 대하여』에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13-14.

북한사회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64.4%), 많이 있다(21.7%), 없다(13.9%) 순으로 응답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많은 사람이 사경제인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으로 인해 실제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경험한다. 1994년 김일성 사후 식량 배급이 축소되고 1996년도에는 아사자가 속출했다.<sup>33)</sup> 이에 따라 1997년부터는 북한당국의 묵인 아래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장사에 나서는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여성들도 장사로 전업하는 사례가 나타났다.<sup>34)</sup>

북한사회에서 가정의 생계는 주로 누가 책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44.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41.7%), 아버지(11.7%), 기타(1.8%)의 순으로 응답하여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살림을 대부분 책임지는 동시에 가정의 생계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생계를 책임진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 사회에서 둘 다 직장을 가진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장사가 체면이 손상되는 “얼굴이 깎이는 일”로 간주되어 남자가 장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sup>35)</sup>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라고 응답했다.

---

33)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p.48.

34) 이미경, 앞의 글, p.194.

35)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p.168.

“남자들은 창피해서 장사를 하러 안 나가요. 아직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가 장사하면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북에서 여자들끼리 ‘남자는 멍멍이’라고 농담을 해요. 여자들이 시장가서 돈 벌 때 남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집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집은 남자가 집도 못 지키니까 멍멍이도 못 되고 풍경화라고 해요.”<sup>36)</sup>

북한에서 여성들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해야 할 상황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47.0%),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43.4%)의 비중이 높았다. 이어서 ‘반드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7.2%),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3.0%),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남자들은 결혼에서도 마음씨 고운 여자가 아니라 장사 잘하는 여자를 선호할 정도로 남녀관까지 바뀌고 있다.<sup>37)</sup>

<표 11> 북한 여성의 직업보유 의식 조사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72 (43.4)
해야 할 상황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78 (47.0)
반드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12 (7.2)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5 (3.0)
기타	0 (0.0)
전체	165 (100.0)

36) 탈북여성 이영주(가명), 2006년 탈북, 2017년 1월 12일 인터뷰.

37)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129.

북한사회에 거주할 때 남성들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47.0%), 있다(45.2%), 많이 있다(7.8%) 순으로 응답하여,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혀 없다고 대답한 항목 중 언어적인 희롱을 겪은 사람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언어적인 희롱은 기분은 나쁘지만 남한에서 정의하는 정도의 심각한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 2) 북한의 여성 차별 대응 실태

북한에서 여성이라고 차별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강력하게 항의하였다'(18.8%), '조금 항의하였다'(41.8%), '항의하지 않았다'(31.5%), 기타(7.9%)로 응답하였다. 보통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한다. '조금 항의하였다'에 응답한 경우 직장에 나가지 않든지 하는 무언의 항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차별에 대응했다면, 누구에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대방(55.8%), 여맹(여성동맹)(19.0%), 상대방의 상급자(10.4%), 당(감찰기관)(8.6%), 기타(8.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에서 여성이라고 차별을 당하고 항의를 하였을 때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졌다'(7.3%), '조금 달라졌다'(44.2%), '달라지지 않았다'(25.5%),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13.3%), 기타(9.7%)라고 응답하였다. 절반 정도가 달라졌다고 응답을 했다. 하지만 여성이 희롱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혹시 상부에 보고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약간 자제하는 정도일 것이라는 심층 인터뷰 증언도 있었다. 여성

차별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항의 해 봐야 달라지지 않는다’(34.2%), ‘북한사회의 관행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19.5%),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지위가 낮아서 차별이 당연하다’(17.1%), ‘항의하면 보복을 받을 수 있어 하지 않는다’(14.0%), ‘여성 차별을 시정하는데 관심이 없다’(10.4%), 기타(8.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항의해 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거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체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 차별이 보편화되어,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동이라거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였다.

<표 12> 북한에서 여성 차별에 항의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항의해 봐야 달라지지 않는다	56 (34.2)
항의하면 보복을 받을 수 있어 하지 않는다	23 (14.0)
북한사회의 관행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32 (19.5)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지위가 낮아서 차별이 당연하다	28 (17.1)
여성 차별을 시정하는 데 관심이 없다	17 (10.4)
기타	14 (8.5)
전체	164 (100.0)

북한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다’(15.8%), ‘들은 적이 있다’(55.8%),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을 본 적은 없다’(20.0%), ‘들은 적이 없다’(9.7%)라고 답변하였다. 북한에서 표면적으로는 남녀평등법

령을 암기하게 하고 세뇌하기 때문에, 남녀평등 법이나 규정을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잘 지켜진다'(5.5%), '조금 지켜진다'(48.5%), '잘 지켜지지 않는다'(32.1%),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13.9%)라고 답변하였다.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지켜지거나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하였다.

북한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다'(41.8%), '법률이나 규정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38.8%), '당국의 의지가 없다'(12.1%), '여성들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9.1%), 기타(2.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사회의 남성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들의 가부장적 문화가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북한 사회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로는 법률이나 규정이 형식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신고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하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표 13> 북한에서 양성평등 법·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당국의 의지가 없다	20 (12.1)
남성들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다	69 (41.8)
여성들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	15 (9.1)
법률이나 규정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64 (38.8)
기타	4 (2.4)
전체	165 (100.0)

북한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39.4%),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평등정책을 실행해야 한다’(35.2%), ‘평등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규위반으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15.2%),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국에게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13.9%), 기타(1.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



<표 14> 북한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법  
단위: 명(%)

구분	응답수(비율)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65 (39.4)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평등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58 (35.2)
평등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규위반으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25 (15.2)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국에서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	23 (13.9)
기타	2 (1.2)
전체	165 (100.0)

### 3) 한국 사회의 남녀평등 인식 조사

북한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의 지위를 바라볼 때,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다'(30.5%), '여성의 지위가 높다'(40.2%), '남녀의 지위가 비슷하다'(18.9%), '남성들의 지위가 여전히 높다'(6.7%), 잘 모르겠다(3.7%)라고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70% 이상의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15> 한국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다	50 (30.5)
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했다	66 (40.2)
남녀의 지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31 (18.9)
남성의 지위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했다	11 (6.7)
잘 모르겠다	6 (3.7)
전체	164 (100.0)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39.6%), ‘보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2.4%),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4.3%),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1.8%), 잘 모르겠다(1.8%)라고 응답하였다. 92%에 이르는 대다수의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이 크다’(51.2%), ‘남성들이 여성을 배려하는 의식이 강하다’(48.2%), ‘한국사회의 문화가 남녀차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33.5%), ‘여성들이 학교 등에서 남녀평등을 교육 받는다’(32.9%), 기타(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발언권이 크다고 보았으며,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의식이 강하여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문화나 학교 등에서의 남녀평등 교육도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는 가정(53.7%), 연애(16.5%), 학교(15.2%), 취업(14.6%), 직장(14.6%), 기타(0.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로는 취업(40.2%), 직장(28.1%), 가정(17.7%), 학교(7.9%), 기타(7.9%), 연애(6.7%) 라고 응답하였다. 탈북 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정이나 연애 면에서는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지지만, 취업이나 직장 면에서는 여전히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탈북 여성들도 한국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지적한 경제 활동 참여 및 기회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결과다. 앞의 <표 8> 조사 결과의 함의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국여성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55.5%), ‘이해가 되지 않는다’(32.3%), ‘이해가 된다’(9.2%), ‘충분히 이해가 된다’(3.1%)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해 87% 이상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남녀유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조사결과의 교차 분석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 정권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인 ‘북한에서 남녀의 고유한 역할이나 특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령대, 자녀 유무, 북한 내 경제적 지위 별로 교차분석 하였다.

먼저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과 연령대 간 교차분석 결과 20대 18명 중에서는 ‘있다’ 4명(22.2%), ‘없다’ 14명(77.8%)으

로 20대 중에서는 남녀의 고유한 역할이나 특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30대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장 및 단체 생활에서 남녀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급직위나 고위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남성 우위가 두드러지면서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6> 북한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과 연령대 간 교차분석표

단위: 명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녀 역할 교육 경험	있다	빈도	4	10	19	21	28	82	
		기대빈도	9.1	8.0	18.1	19.6	27.2	82.0	
	없다	빈도	14	6	17	18	26	81	
		기대빈도	8.9	8.0	17.9	19.4	26.8	81.0	
전체			빈도	18	16	36	39	54	163
			기대빈도	18.0	16.0	36.0	39.0	54.0	163.0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다’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양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가 있는 경우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남녀 고유의 역할에 대해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 북한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과 자녀 유무 간 교차분석표

단위: 명

			자녀 유무		전체
			자녀가 있다	자녀가 없다	
남녀 역할 교육 경험	있다	빈도	64	16	80
		기대빈도	62.5	17.5	80.0
	없다	빈도	61	19	80
		기대빈도	62.5	17.5	80.0
전체		빈도	125	35	160
		기대빈도	125.0	35.0	160.0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과 북한 내 경제적 지위 간 교차분석에서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가 상급인 경우 ‘있다’ 4명(80.0%), ‘없다’ 1명(20.0%), 중급인 경우 ‘있다’ 33명(58.9%), ‘없다’ 23명(41.1%), 하급인 경우 ‘있다’ 37명(45.7%), ‘없다’ 44명(54.3%), 최하급인 경우 ‘있다’ 7명(33.3%), ‘없다’ 14명(66.7%)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남녀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비율이 감소하여 뚜렷한 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북한사회에서 높은 경제적 지위는 역시 남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다.

<표 18> 북한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경험과 북한 내 경제적 지위 간 교차분석표

단위: 명

			북한 내 경제적 지위				전체
			상급	중급	하급	최하급	
남녀 역할 교육 경험	있다	빈도	4	33	37	7	81
		기대빈도	2.5	27.8	40.3	10.4	81.0
	없다	빈도	1	23	44	14	82
		기대빈도	2.5	28.2	40.7	10.6	82.0
전체		빈도	5	56	81	21	163
		기대빈도	5.0	56.0	81.0	21.0	163.0

#### IV.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양성평등 과제

특정사회의 문화는 변화하는 데 축적된 시간 만큼에 비례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동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행동 변화가 가능해야 여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계별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교육과 제도가 불가피하다. 특히 통일한국의 북한사회와 같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전환되는 사회는 더욱 그렇다. 또한 일정한 물리적 시간의 동반도 필수적이다. III장에서 조사된 통계 조사 및 인터뷰와 각종 북한 문헌의 분석 결과 및 함의를 바탕으로 우선 통일준비 과정에서 남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각

중 사전조치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통일실현 과정에서 통일 한국 사회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sup>38)</sup>

## 1. 북한 양성평등 전담 연구체계 구축

통일준비 단계에서는 우선 북한 사회에서 정착된 남녀평등의 실제와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 이전단계에서 국내에 체계적인 북한 여성 및 양성평등 연구를 수행하는 법과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1단계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 북한여성 정책의 현황과 추진 실태를 집중 분석하는 전담연구기구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전담 연구 인력을 보강하여 연구의 중심점을 형성하는 것은 연구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거나 통일에 대한 여론이 고양되면 연구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구가 감소하는 불안정한 연구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연구기관에는 북한 양성평등 연구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가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관심 여부 등 시류에 따라 예산 마련 및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유동적인 실정이다. 이제 국내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기간 축적되고 부분적으로 선진화된 만큼 일부 연구 기능을 북한 양성평등 연구로 전환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북한의 행정체계와 주민간의 연결고리를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

38) 남성욱 외,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pp.113-125.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적용할 대상과 분야를 조직적으로 발굴하고 적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야별 대상을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각각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불평등 사례와 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성주류, 인권, 안전, 문화, 언론 및 취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양성평등 법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에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부장제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북한에는 성인지(性認知)와 성주류화(性主流化)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건설 동참에 남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남녀를 구분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의 각 제도와 법령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면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과업수행 추진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2. 북한의 양성평등 기본법제 구축

통일 이후 바로 남한의 진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한 각종 법제를 북한 지역에 단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한의 경우 양성평등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실현하는데 전체적으로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987년 〈남녀평등고용법〉 제정,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sup>39)</sup>〉이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

---

39)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



차적인 법제도가 완성되었다. 이후 20년간 분야별 세부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정부와 민간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은 향후 북한이 통일실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실현해야 할 법과 제도이다. 이 법을 기초로 하여 2단계로 북한 지역에 적용할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결국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법과 제도의 동반 정착이 진행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결실을 중간 과정 없이 단순 결과물만 북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감내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남한 사회가 경험해온 각종 법제도를 북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북한 여성을 전담하는 기구들이 통일이후 북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3. 북한의 양성평등 실현 거버넌스 구축

남한의 여성정책연구 기관들을 벤치마킹하여 ‘북한여성개발원’(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문연구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양성평등 정책

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정부장관실(1988)→여성특별위원회(1998)→여성부(2001)→여성가족부(2005)→여성부(2008)→여성가족부(2010) 등으로 시대의 사회적 수요에 따라 부처의 명칭과 기능이 변화해왔다. 핵심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다. 통일실현 단계에서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한이 과거에 운영했던 정부기구를 단계별로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일관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남한의 여성운동은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북한 사회의 오랜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차원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적인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70년에 걸친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제는 하루아침에 하나의 교육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남녀평등고용법>을 시작으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르는 30년간에 걸친 양성평등 실현의 역사는 제도를 바꾸는 법제정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체계화된 법률에 입각해 여성정책이 입안,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여성정책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제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활동 로드맵을 통일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북한은 정권 창설초기부터 남녀평등과 가족제도 및 탁아소, 산원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신속하게 구축하였다.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을 시작으로 1948년 <여성상담소 및 유아상담소에 관한 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 산원에 관한 규정>, 1966년 <모성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1968년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한 것에 대한 내각 결정〉, 1976년 〈사회주의 어린이보육교양법〉, 1990년 〈가족법〉 등을 연속적으로 제정 발표하였다. 북한의 법제들은 형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의 구색을 구비한 부분도 있으나 법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 과정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백지상태에서 통일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관련 법령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구 신설 및 제도 보완 등의 통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sup>40)</sup>

## V. 결 론

사회주의 체제의 가치체계와 이념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주의 건설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며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남녀평등을 강력하게 내세운다. 외형적으로 여성의 위상을 남성과 동등하게 정립한다.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 참여는 필연적으로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유도한다. 결국 당국이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양성평등과 실제 현장에서 지향하는 의도가 다르다. 북한이 지난 70년간 구축한 형식적인 남녀평등 정책과 문화는 상당부분 고착화되었다. 일시에 기존 북한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문화를 해소하고 변화를 시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특히 북한의 양성 평등정책과 문화가

---

40) 〈표 19〉 남북한 여성정책 법령 및 제도 비교

통치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의 삶과 의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북한 정권은 법령과 제도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을 강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의 참여를 독려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남녀평등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7월 30일 『로동신문』 사설에서도 여성이

시기	남한	북한	비고
1946년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1948년		여성상당소 및 유아상당소에 관한 규정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 산원에 관한 규정	
1956년		협의이혼제 폐지	
1958년	가족법		북한 1990년
1966년		모성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1968년		<탁아소, 유치원과 어린이 보육 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에 대한 내각 결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87년	남녀평등고용법 (국민소득 3,300 달러)		
1990년		가족법	한국 1958년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국민소득 10,000 달러)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국민소득 28,100 달러)		

가정에서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여성에 대한 관점과 역할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집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정책이다.<sup>41)</sup>

북한은 2014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68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모두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만능인 ‘슈퍼우먼’이 되라고 독려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65년 만에 변경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11월 19일 여맹 제 6차 대회(17~18일)에서 여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변경하는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65년 만에 바뀐 명칭은 ‘민주’를 빼고 ‘사회주의’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에서 ‘민주’라는 말은 정치적 표현으로,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집행만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경제활동에서 여성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42)</sup>

---

41)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주의생활문화를 꽃피워나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응당한 본분이다.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한다. 자녀들의 본보기 생활의 거울이 되고 훌륭한 교양자가 되며 가정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감으로써 그 어느 가정에서나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의 노래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42) “북한 노동당의 외곽 단체인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돼 1951년 1월 20일 남북의 여성동맹이 통합되면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이름이 1차 변경된 바 있다. 여맹은 당초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가입대상이었지만, 1983년 5차 대회 이후 30세 이상의 전업주부 모임으로 바뀌었다. 2016년 11월 17~18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여맹 대회는 김일성 주석 집권기인 1983년 이후 33년 만에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 2016년

탈북여성의 조사결과는 북한 사회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되었고 고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공식적인 이혼은 많지 않으나 경제난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늘어나며 실질적인 가족 해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제난 이후 여성은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서고 경제력을 가지며 목소리가 커진 경향이 있지만 북한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 자체가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양성평등 실현으로 연계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경제난 속에서 여성의 슈퍼우먼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보다는 의무만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양성평등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주로 '남성들의 가부장적 문화'와 '법률이나 규정이 형식적이기 때문'으로 나타나, 향후 통일한국에서 북한과 남한의 통합을 위해 가부장적인 의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남녀가 각자의 성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주어진 소임을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다. 육체적 측면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과도한 육체노동과 경제활동을 남성과 동등하게 강요하면서 현모양처라는 또 다른 여성 고유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진정한 평등이나 우대가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고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인식이다. 양성평등도 이와 유사한 인식과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11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11/19/1801000000AKR20161119044100014.HTML> (검색일: 2017. 4. 24).

논문투고일 : 2017.09.18

심사완료일 : 2017.09.24

게재확정일 : 2017.09.28

## □ 참 고 문 헌

---

---

- 강동완, 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  
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구수희 편저, 『북한연구법전』, 서울: 행법사, 1996.
- 김형준,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비전,”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  
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17년 4월 20일).
- 김선옥, 김원홍, 김영혜, 김동령,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여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애실,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통일을 대비한 남  
북한여성의 실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  
원 제4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1996년 12월 9일).
- 김태현, 노치영,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2호, 대한가  
정학회, 2004.
- 김혜영, 박선애,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의식 및 문화통합방  
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남성욱, “80년대 남북관계와 한국사회의 대북관: 이상과 현실,” 『국

- 제문제연구』, 제13권 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
-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 남성욱 외,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대한가정학회, 2000.
- 박복순,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박영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서울: 법원행정처, 1998.
-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사회과학출판사,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할 데 대하여』에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서정민,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5.
- 신영호, “북한 가족법의 제정과 그 특색,” 『북한법률행정논집』, 제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2.
- 신창민, 『통일대박론』,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2, 한국여성사학회,



2015.

-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 이배용,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 이윤희, 박현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연구,” 『북한·통일연구논문집: (V) 사회·문화 분야』, 서울: 통일원, 1990.
- 윤미량, “북한 여성의 위상과 역할,”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1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1992년 11월 30일).
- 장혜경 외, 『통일 대비 여성 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정경모·최달근 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4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 정진경,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한국심리학회, 200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인민경제의 발전』, 평양: 과학원, 1954.
- 조형,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1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1992년 11월 30일).
- 통일원, 『북한 가족법과 가족실태』, 서울: 통일원, 1991.
- 헬렌 루이스 헌터, 남성욱 외 역, 『CIA 북한보고서』, 서울: 한송, 2001.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통일연구원, 2015.

Helen-Louise Hunter, *Kim Il-song's North Korea*,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9.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2.

『여성신문』. 2016년 10월 26일.

<http://www.womennews.co.kr/news/98958> (검색일: 2017. 5. 30).

『연합뉴스』. 2016년 11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11/19/1801000000AKR20161119044100014.HTML> (검색일: 2017. 4. 24).

『조선일보』, 2017년 4월 1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1/201704110016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1/2017041100169.html) (검색일: 2017. 4. 2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홈페이지 [www.unikorea.or.kr](http://www.unikorea.or.kr) (검색일: 2016. 11. 15).

## 〈Abstract〉

###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equality in unified Korea

*Nam Sung-wook, Lee Ga-young, Chae Su-lan, Bae Jin(Korea University)*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 is likely to be a major obstacle to social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two Koreas, who have lived for a long time under different ideologies and regimes, will suffer from heterogenous natures resulting from their unique gender awareness in the real life as a universal lifestyle. The perception of the male domin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both a senses of traditional patriarchal authority society and socialism machoism, is likely to cause serious conflict with South Korea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idea that it is desirable to narrow the gap of gender equality between the two Ko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future soc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and consciousness, and present a countermeasure at the policy level. The surve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confirms that the patriarchal way of thinking is prevalent and immobilized in North Korean society. Women's grow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can not be linked to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Paradoxically, in the economic difficulties, only the superwoman syndrome ar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gender equality is not maintained in North Korea mainly because of patriarchal culture of men and perfunctory law and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for the unified Korea, and establish practical laws or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rue

gender equality.

**Key Words** : Gender equality, Patriarchal authority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Superwoman, North Korean Women